



벽

화봉초 6-3 김서연

“하아암~”

사회 시간에 영 집중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역사인 6·25전쟁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말이다. 우리의 잠을 깨우려는 것인지, 집중하게 하려는 것인지, 선생님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셨다.

“황!!”

나는 깜짝 놀라 영상에 집중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다. 뿌연 연기 사이로 회색 벽이 보였다. 소리에 깜짝 놀란 것인지 회색 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친구가 만화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자고 했다. 도서관에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세계의 벽」이라는 책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많은 고민 끝에 책을 집어 들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벽들이 있었고, 보호와 방어 그리고 갈등과 분리의 의미를 가진 벽들도 있었다. 그중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 세 가지 벽이 있었다.

바로 홀로코스트 위령의 벽, 베를린 장벽, 그리고 한반도의 휴전선이다. 특히 홀로코스트 위령의 벽 페이지는 쉽게 넘길 수 없었

다. 왜냐고? 왜냐하면 고작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역사 때문이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절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다른 사연을 가진 베를린 장벽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임에도 벽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리움을 발판 삼아 두려움을 뛰어넘어 용기를 냈다.

마지막으로 70년 된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있다. 이 휴전선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했다.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내 답은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내가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은 내 용기는 내 두려움보다 2배, 아니 3배는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마지막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왜 이런 벽들을 쌓을까?’

아마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포함하여 아직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벽들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장벽,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이 있다.

나는 내 주변의 벽들을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는 편견, 무관심, 차별이라는 벽이 존재한다. 이 벽을 이겨내지 못해 서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 벽을 무너뜨리려면 커다란 힘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자그마한 용기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벽들을 쌓아 올리지 않고 이 모든 벽들을 허무는 사람이 될 것이다.